

이루고 있다네.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혼란 속에서 일생을 보내고, 사회에서 이러한 혼란은 부의 축적이 점점 더 적은 머릿수로 집중될수록 커지지. 국가는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것인데, 거기에 작은 나무들을 가리는 키 큰 나무가 너무 비대해져버리면 작은 나무들은 싹을 틔울 수조차 없다네. 허나 여기엔 이런 차이가 있어. 무릇 정원의 아름다움이란 몇 그루 키 큰 나무로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, 한 국가의 번영이란 언제나 극소수의 부자들이 아니라 다수를 이루는 국민과 그 국민의 평등에 달려 있다는 점이지.

폴

그런데 결혼하려면 왜 부자가 되어야 하죠?

노인

아무것도 하지 않고 풍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지.

폴

아니,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? 저는 일도 잘하는데.

노인

유럽에서는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체면을 깎아내리기 때